

외동이의 특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Only Child and the Attitude of Parental Rearing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도미향*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강사 김응자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Professor Doh, Mi-Hyang

Dep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College

Instructor Kim, Eung-Ja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substantial characteristics of the only child and the attitude of parental rearing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of educating the parents.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shall bring up their only child so that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and the attitude of speaking openly with their peers.

Second, parents shall let their only child deal with his(her) matters independently by helping him(her) distinguish what his(her) parents can help or cannot help and shall give many opportunities of performing for himself(herself) so that he(she) can grow independently with confidence.

Third, parents shall endeavor to strengthen their child's originality while they shall be consistent so that their child conduct himself(herself) allowably in the society.

* 교신저자 : 도미향(E-mail: fine208@hanmail.net)

Fourth, it is important that the only child have opportunities to play with many peers and to make relations with them.

Fifth, the society shall provide counselling facilities for the only child and his(her) parents, program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only child and his(her) parents, and many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of social organizations.

주요어(Key Words) : 외동이(only child), 부모양육태도(parental rearing attitude), 부모교육(parent educating)

I. 서 론

오늘날 전통적인 가정형태가 변화되면서 가정 내에서만 활동하던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진출을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여성들은 자녀를 적게 낳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동이 가정이 늘고 있으며, 외동이는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질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한명의 자녀나마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욕구와 세계 최고의 교육열까지 맞물려 저 출산율을 가속화시켜 외동이 가족을 증가시키고 있다(한겨레신문, 2004).

특히, 육아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제도 및 시설미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기피하거나 한 자녀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통계청, 2002).

최근 통계청(2002)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가임(可妊)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 전인 1970년에 4.53명이었던 것이 1980년에 반으로 줄어 2.83명에서 1990년에는 1.59명으로 낮아져 30년 동안 자녀수가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2000년 조사한 남녀 성비(여성 100명 당 남성 수)는 100.7로 남녀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과는 달리 10~14세 연령층의 성비는 114로, 9세 이하 성비는 112로 나타남으로써 성비 불균형이 아래 세대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동아일보, 2003.06.13). 이는 한국 사회가 '한 가정 한 자녀' 시대에서 더 나아가 '한 가정 외동아들' 시대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만 낳는다면 아들'을 희망했던 부모들은 유아기, 청소년기의 양육과정을 거치며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현재 2,000만의 외동이 가구가 있으며 뉴욕주 가구의 30%가 외동이를 키우고 있다(www.onlychild.com). 이렇듯이 외동이 가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가족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이렇게 한자녀의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학자들은 외동아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과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1979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one child per family)'을 시행하여 외동이들의 과보호에 의한 이기적 행동 등에 대해 '소황제(little emperor)'라고 지칭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제자매 관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느낌과 의도, 그리고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게 되는 등의 중요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한다는 이유로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과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외동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적 양육태도와 불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거나 의존적인 행동특성을 야기 시키는 사회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김재은, 1997; 정승길, 1996; 조진선, 1999).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외동이와 형제아 사이의 사회정서발달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송나리, 1993). 그리고 만약 형제의 존재 혹은 부재가 아동의 사회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형제유무 그 자체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외동이에 있어서는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희정, 1995). 그러므로 현재의 저 출산을 추세대로 하면 외동이 가족은 향후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외동이 가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외동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동이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아동양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동이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외동이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외동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외동이 양육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동이의 특성 및 이론적 관점

1. 외동이의 일반적 특성

외동이(Only Child)라 함은 남·녀 형제의 구별없이 가정에서 단 한 명만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말하며, 외동아 혹은 외동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동이라 하기로 한다.

이러한 외동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외동이와 형제아의 특성을 서로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동이의 부정적 특성

외동이라는 달리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에게 지지자,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조화롭지 못한 가정에서 중요한 지지를 제공한다. Azimitia와 Hesser(1993)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손위 형제는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학습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함으로써 형제유무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Gardner 등은 외동이는 모든 면에서 장애를 가지며, 외동이는 형제아가 지닌 동일한 적응능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김재은, 1997, 재인용).

따라서 외동이는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만이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외롭고 제멋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 이와 같이 외동이는 형제아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덜 협동적이며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형제관계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송나리, 1993).

다음은 외동이 가족 중 특히 외동아들의 문제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동아일보, 2003.06.17).

● 외동아들 키우기 I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진수(가명·9)의 친구, 외가는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진수가 태어나자 친조부모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외조부모는 “맞벌이하느 딸도 돕고 손자도 직접 키워보고 싶어서...” 진수집 근처로 이사했다. 역시 맞벌이를 하는 진수의 고모도 육아 때문에 친정 부모 집 근처로 옮겨오면서 진수로 인한 ‘패밀리 타운’이 형성되었다. 요즘 진수는 갖 두 돌

을 넘긴 사촌 동생이 영 못마땅하다. 사촌동생이 생긴 후부터는 이전에 없었던 물건 욕심도 생겼다. 사촌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진수는 친·외가를 통틀어 양가의 유일한 아이로 7년을 군림했다. 그러나 집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엄마의 관찰 결과 진수는 집단을 이뤄 공부하거나 어울려 놀 때 항상 '행위자'가 아닌 '관찰자'에 머물렀다.

● 외동아들 키우기 II

정민이(가명·7)가 18개월 되던 때 엄마(34·주부)는 아이가 영재라고 믿게 됐다.

엄마의 조기 교육 욕구, 할머니의 과잉보호, 육아관이 다른 엄마와 할머니의 고부갈등에 지친 것은 정민이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소극적인 아이가 돼 버리더니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말수가 부족 줄어들어 학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언어 능력이 떨어졌다. 엄마와 정민이는 요즘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치료를 받는 또래 아이들 가운데 외동아들의 수가 많아요. 어떤 엄마는 병원에까지 영어 낱말카드를 들고 와 대기실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엄마도 함께 치료' 명령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외동아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기 시작하면 조속하지만 덜 사교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여성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 외동아들의 경우 부모의 육아방식, 본인의 성격 등에 따라 지나치게 소극적이든지 지나치게 사교적인 '성격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예도 많다.

2) 외동이의 긍정적 특성

외동이는 놀이터의 친구들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주력한다. 또 부모를 동료 의식을 나눌 상대로 여기거나, 부모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Hurlock(1964)은 외동이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인 면의 발달이 더딜 우려는 있으나, 형제간의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해 성격이 비뚤어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서희정, 1995. 재인용). Tony Falbo(1981)는 외동이 집단과 형제아 집단의 개인 성격을 비교한 결과 외동이 집단에서 오히려 성취욕 및 자존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형제의 유무에 의한 영향을 제각기 다르게 보고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외

동이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크게 바뀌어 지고 있다. Boney는 "형제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외동이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6). 따라서, 형제의 존재 또는 부재가 인성발달에 어떤 역할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외동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잘 적응된 사람으로 발달하는 것은 형제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가장 최근의 주장들이다.

2. 외동이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

외동이에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외동이의 발달결과들을 설명해 주는 주된 심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백경숙, 이무영, 2003).

1) 결핍 메카니즘

형제관계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동이는 형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외동이는 형제가 있는 아동보다 불리하며,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결핍메카니즘은 외동이 지능의 '비연속성'을 confluence model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Zajonc & Markus, 1975). confluence model은 아동의 지적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요인으로써 두 가지의 구성요소 즉, 가족의 지적환경 요인과 형제의 가르침 요인(sibling tutoring factor)을 들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른이 둘 있고 어린아이가 한 명뿐인 외동이의 경우가 지능에 있어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한편으로 외동이와 막내인 경우에는 어린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적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동이의 경우 아동초기에는 두 자녀 가정의 아동보다 지능검사 점수가 높으나, 이러한 상태는 형제가 서로를 위한 지적 자원으로 쓰이게 되는 아동기, 청소년기 동안에 점차 역전하여, 성인 초기가 되면 외동이가 두 자녀 가정의 맏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독자성 메카니즘

이 메카니즘은 외동이가 경험하게 되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외동이는 첫째 혹은 막내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경험

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동이는 동생으로 인해 자기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는 막내와 유사하지만, 태어나서 몇 년 동안 부모의 전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맏이와 유사하다. 또한, 외동이는 다른 아동과 달리, 외동이라는 그 자체로써 전가족의 크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독자적이다.

독자성 메카니즘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외동이 발달에 있어 자기중심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리더십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3) 부모-자녀 관계 메카니즘

위에 제시되었던 두 가지의 메카니즘은, 외동이의 위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부모자녀 관계의 메카니즘은 특별히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동이와 맏이의 경우 부모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아동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첫 아이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외동이나 맏이로 하여금 더 우호적이게 하고, 성취동기나 내적통제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Falbo & Cooper, 1980).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애정이나 관심은 아동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의존성이나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지적 발달이나 성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Blake, 1981; Falbo & Cooper, 1980).

3.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동이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되었던 심리적인 메카니즘 이외에도 최근에 들어서는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다른 요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과거 심리학자나 정신 병리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인 증거 없이 주장되어왔던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이론에 기초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짐에 따라 다시금 재검토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동이의 발달결과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차례로 밝

혀지면서, '진정한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부모의 특성

'아버지의 부재' 혹은 '부모의 높은 관심' 등이 외동이와 형제아 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첫째, 외동이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한 결손가정(broken home)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Blake, 1981)에 형제아에 비하여 외동이는 한부모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외동이의 발달적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albo(1978)는 외동이 지능의 비연속성에 대하여 결핍메카니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영향력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외동이와 형제아 간의 행동발달을 비교할 때, 외동이의 수행능력이 부정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외동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동이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변인에 의한 영향임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Blake, 1981).

둘째, '부모-자녀관계의 성질'이,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외동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높은 관심'을 경험하게 된다.

Kidwell(1978)과 Lewis와 Kreitzberg(1979)에 따르면, 외동이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외동이가 부모를 더 애정적으로 인식하고 높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외동이는 부모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발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Falbo와 Poilt(1986)의 보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들은 외동이와 형제아 간의 발달결과를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성취, 적응, 성격, 지능, 사회성) 고찰한 결과, 외동이가 두 자녀 혹은 만이와는 유의하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대가족 자녀와 비교되었을 때는 더 우수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소가족인 경우의 부모자녀 관계의 성질, 특별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메카니즘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2) 외동이 아동의 특성

(1) 사회정서발달 특성

외동이의 사회성 발달을 연구한 견해들은 그 차이가 다음과 같은 형제자매의 부재,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성, 사회계층과 같은 변인들과 관계되었다.

지금까지의 외동이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는 출생순위나 가족크기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외동이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나 측정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외동이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외동이 갖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학령 전거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외동이인 경우 사회성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정승길, 1996)고 본 반면, 우리나라의 외동이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서로 별 차이가 없거나(김정아, 1990; 송나리, 1993), 여전히 형제아의 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김병태, 1998; 정유자, 1999). 또한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며(류향자, 1999), 외동이는 외톨이가 될 확률이 여러 자녀의 가정보다 훨씬 많아 외톨이 중에서 17.4%가 외동이인 반면 친구가 많은 학생 중 외동이인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이시형, 구자경, 이규미, 2001).

도미향과 윤지영(2004)의 연구에서는 외동이의 사회정서발달의 특징은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호기심이 더 많고, 여자 외동이가 남자 외동이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사회성 점수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조성호, 1999).

사회계층에서는 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내적통제성이 더 높았고, 중 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성취동기와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동이의 부모양육태도와도 연관되는 것으로써, 부모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여자 외동이의 사회정서특성에서 성취동기와 호기심을 발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ndsley(1979)는 높은 권위를 가진 부모보다는 낮은 권위를 가진 부모가 아동과 더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외동이나 형제아 모두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호기심이 더 많고, 내적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남자아동에게 더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동의 발달특성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경로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점차 아버지의 역할 수행 및 참여가 자녀의 성격,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및 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송성옥, 1998).

외동이의 배경변인별로 사회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사회성 점수를 나타냈다. 부의 학력별로 아동의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성의 하위요소인 근면성, 자율성, 사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양동두, 1993; 조성호, 1999).

(2) 외동이의 성취수준 및 지적발달

‘성취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외동이와 소가족 아동, 특히 맏이인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발달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백경숙 등, 2003).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은 아동의 성취동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성취동기란, 부모들이 비교적 초기에, 그들 아동에게 높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맏이와 외동이의 부모에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Falbo & Cooper, 1980).

Blake(1981)은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외동이가 대가족의 경우 보다 교육정도나 직업지위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밝혔으며, Falbo(1981) 역시, 대학생 외동이와 맏이가 다른 출생순위의 대학생보다 교육적 열망을 높게 나타냈다고 했다. Ching(1982)은 3세부터 15세까지의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8명의 외동이 가운데 32%(형제아 가운데에서는 19%) 학업성취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성취에 있어서 외동이의 우수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고조된 관심이 수행에 대해 기대를 부추기고, 성취를 부추기고, 성취를 보상하며 자극하기 때문에 ‘성취’에 있어서는 외동이의 경우, 형제가 없다는 것이 결함이 된다고보다는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성취수준’에 있어서 외동이의 우수함은 나이에 아동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Falbo & Polit, 1986). 이것은 연령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재정적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으므로 더 높은 교육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외동이의 ‘지적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elmont와 Marolla(1985)가 네덜란드에서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출생순위, 가족크기와 지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맏이와 소가족(1-3)자녀의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외동이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청소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Zajonc와 Markus(1975)는 외동이가 다른 순위의 아동보다 낮은 IQ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나, Brackbill과 Nichol(1982)은 4~7세 외동이의 지능점수를 조사한 결과 다른 순위의 아동과 유의한 점수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Ching(1982)의 연구에 의하면, 3-15세 아동들 가운데 외동이가 같은 연령의 형제아들보다 상상력, 언어능력, 모방력, 생산적 사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외동이의 지적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특히, Zajonc(1976)는 confluence model을 제시하여, 외동이는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 즉, 외동이는 편부모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동이의 지적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 후, Falbo와 Polit(1986)은 광범위한 외동이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교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지능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외동이가 비 외동이보다 지능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즉, 외동이는 모든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IQ에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으며, 특히 두 자녀 가족(소가족)보다는 대가족이나 중간크기의 가족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하였다.

Ⅲ. 외동이 부모의 양육태도

1. 외동이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외동이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유일한 초기 사회화의 수단이 되며, 형제아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형제아는 또 다른 형제의 출생으로 새로운 관계가 첨가되어 부모태도의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외동이는 부모관계의 변화보다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는 달리 지각될 수 있다.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여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으로 지각한 집단이 절대적·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집단보다 좋은 적응력을 나타내며(유영희, 1980),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이고, 자율적이며, 애정적일 때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교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허용하고 성취감을 갖도록 자극하는 태도이며, 이런 가정에서 성장된 아동은 사회성, 지도력, 학업성취에 우수성을 나타낸다는 연구(조성호, 1999)와 일치한다. 이것은 형제유무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외동이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외동이에게 집중되고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과보호를 받기 쉬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자녀는 책임감이 없으며 자기 본위이고 사회성이 결핍될 수 있다. 또한 무슨 일이든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성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외동이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도 높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도 커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Kidwell, Lewis와 Kreitzberg에 따르면, 외동이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외동이가 부모를 더 애정적으로 인식하고 높은 질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외동이는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송나리, 1993, 재인용).

외동이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김진남(1987)은 외동이 어머니가 두 자녀 이상의 어머니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과보호나 자녀 중심적 태도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더 과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낮을수록 자유방임에 치우쳐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과보호하고 자녀 중심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Deluies(1987)는 4세, 8세, 16세 아동의 아버지 176명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 양육실제, 태도, 아버지의 역할 참여와 만족을 평가한 결과 성별에 따른 아동양육실제에 있어서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이라고 하였다(조성자, 손은주, 1998, 재인용).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성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성취기대와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외동이와 형제아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들 외동이의 경우도 성과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에 의해 다르게 취급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외동이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도미향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총426명을 연구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형제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외동이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 양육태도에서는 형제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어머니는 외동이에게 더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동이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특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남자 외동이보다 여자 외동이에게 더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고, 형제아의 경우는 남아에게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도미향, 윤지영, 2003).

이것은 하나뿐인 자녀가 여자일 경우 아들 못지않게 잘 키우겠다는 의지로써 부모 모두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동두(1993)의 연구결과에서 여자 외동이가 남자 외동이보다 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제아의 경우는 아직도 남아에게 부모 모두가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의 영향력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동이의 비율이 남아가 여아보다 많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에서는 외동이나 형제아 모두 중하류층의 아버지가 상류층의 아버지보다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고, 중하류층의 어머니가 중상류층의 어머니보다 더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녀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기존의 연구(최은석, 1997)와는 다른 결과로 부모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 이외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활동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시간을 내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따른 양육으로 인해 아동이 부모를 보다 덜 애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2. 외동이에 관한 부모의 관점과 양육태도

외동이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버릇이 없고 소심하고 이기적이라는 것, 게다가 형제자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경쟁과 타협, 공격과 후퇴,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인정하는 것 등을 배울 기회도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외동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정확한 예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외동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들의 태도와 행동 탓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기 위해 애정과 관심, 재산을 쏟아 붓는다. 그리곤 아이가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수퍼 차일드’가 되길 원한다. 때론 “외동아이라서 저래”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과민반응하기도 한다(정지인 역, 2004; 중앙일보 2004.11.13).

- “때로 저 아이를 보면 슬프지 않으세요? 혼자서만 저렇게 지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외동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흔히 듣는 얘기다.
- “○○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려요. ○○는 외동아이지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

Maccoby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더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Buss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의 두 배나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보고하였다(김기련, 1991, 재인용).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른 성취기대와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외동이와 형제아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들 외동의 경우도 성별에 따라 부모에 의해 다르게 취급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외동이의 부모는 아이가 영재 또는 천재라고 여기기 쉽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 모델인 부모의 말투, 행동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외동아들 엄마의 상당수가 “외동딸을 두었다면 외동아들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부부의 노후를 아들에게 맡길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아무래도 아들을 ‘객관적 기준’에 비춰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여전히 딸에 비해 아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통제를 한다. 반면 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키우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외동아들 엄마가 외동딸 엄마보다 아이를 더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은 전적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정지인 역, 2004).

따라서 앞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 형제 수, 성별 등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연구마다 그 결과는 다양하고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대부분의 외동이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 형제 수, 성별에 대한 각각의 중요성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결 론

현재의 저 출산을 추세로 인해 외동이 가족은 향후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서 외동이 가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외동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동이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아동양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동이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외동이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외동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외동이 양육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외동이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외동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외동이와 형제아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외동이의 사회적 고립 등 사회성 등에 대한 부정적 관심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외동이 가족을 위한 부모양육태도 형성과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외동이라면 의례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협동하지 못하며, 외동이 부모는 이기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성 증진이나 협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확일적인 접근을 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특성이나 외동이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형제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이들 외동이 가족이 사회에서 외동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결함을 지닌 가족이라는 부정적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외동이의 실태를 보면 남아선호사상의 전통적인 자녀관이 잔재하고 있어 출산성비의 불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동이 성별구성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의 부족으로 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남아의 심리적 불편감과 이들이 성장한 후 결혼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예견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동이 부모는 자녀양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모는 아이를 항상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맞벌이 부모인 경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싶지만 아이가 하나뿐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무리를 한다. 이 때 아이에게 부모도 힘들고 쉬고 싶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외동이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둘째, 일찍부터 협동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주어야 아이가 나중에 상처를 덜 받는다. 외동이에게 '동네 놀이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동이의 부모는 아이와 자주 대화하며 형제 대신 놀이친구 역할을 해주고, 역할놀이 등을 통해 서로 처지를 바꿔보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셋째, 과잉보호를 하지 말고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엄마, 아빠는 너뿐이다. 그러니 너는 잘해야 돼" 라는 식의 지나친 기대는 아이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애쓰기보다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아이가 말썽을 부렸을 때 외동아이는 다른 형제에게 그 책임을 미룰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부모가 야단을 칠 때는 한 사람만 하도록 하고 때로는 무관심해질 필요가 있다. 아이의 실수에 관대해져서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의 행동에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다섯째, 물질적인 보상은 절제하고,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예절을 알려주며,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규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동이는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라는 편견이 작용하지만, 이것은 외동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문제로 보여진다. 물론 외동이는 형제순위에서 오는 긴장감이 덜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만 형제아보다 정서적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 주고, 또래와의 많은 접촉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성을 살려주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적절한 통제와 규율을 통한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는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상담시설, 외동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외동이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과 부모가 사회단체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련(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창의성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태(1998).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이시형, 구자경, 이규미(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김재은(1997). 개정 유아의 발달 심리. 서울: 창지사.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남(1987). 외동이와 두 자녀 이상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1986). 축복 속에 자녀 하나.
- 도미향, 윤지영(2003). 외동이가족에서의 자녀문제와 부모교육. 대한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도미향, 윤지영(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6.
- 동아일보(2003.6.17). 생활/여성 기획. 54면.
- 류향자(1999).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 특성과 학교 적응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백경숙, 이무영(2003). 유아기 외동이가정의 부모자녀특성과 부모교육. 대한부모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서희정(1995).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나리(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옥(1998).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동두(1993). 형제 수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성격 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희(1980). 부모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적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길(1996). 한 자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자(1999). 초등학교 외동이의 협동성과 사회성 및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인 역(2004). **즐겁고 행복하게 외동아이를 키우는 비결**. 서울: 이미지.
- 조성자, 손은주(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카톨릭교육연구**, 8, 39-62.
- 조성호(1999). 외동이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선(1999). 아동의 형제유무와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2004.11.13).
- 최은석(1997). 사회계층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한겨레(2004.1.26). 버릇없는 외동아이 근거 없는 편견.
- Azimitia M., & Hesser, J.(1993). Why sibling are important agents of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ibling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 430-444.
- Belmont, L., & Marolla, F. A.(1985). Birth order, Family size, and intelligence. *Science*, 1(182), 1096-1101.
- Blake, J.(1981). The Only Child in America : Prejudice versus Perform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 43-54.
- Brackbill, Y., & Nichol, P. L.(1982). A Test of the Confluence Model of Intellectu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2), 192-198.
- Ching, C. C.(1982). The One Child Family in Chian : The Need for Psychosocial Resear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13, 208-212.
- Endsley, R. C., Hutcherson, M. A., Garner, A. P., & Martin, M. F.(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Child Development*, 50, 331-339.
- Falbo, T.(1978). Sibling tutoring and other explanation for intelligence discontinuities of only and last borns. *Journal of Population*, vol.1(4), 349-363.
- _____(1981). Relationships between Birth Category, Achievement,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21-131.
- Falbo, T., & Cooper, C. R.(1980). Young Children's Time and Intellectual Abil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4(1), 121-131.
- Falbo, T., & Polit, D. F.(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100(2), 176-189.
- Kidwell, J. S.(1978).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Affect : An Investigation of Only Children vs Firstborns and the Effect of spacing. *Journal of Population*, 1, 148-166.
- Lewis, M., & Kreitzberg, V. S.(1979). Effects of Birth Order and Spacing on Mother-

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17-625.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9, 417-424.

www.onlychild.com

Zajonc, R. B., & Markus, G. B.(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vol.82, 74-88.

Zajonc, R. B.(1976). Family Configuration and Intelligence. *Science*, 92, 227-235.